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 연구

김 오 남¹⁾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모자가족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의 정도와 개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를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로서 284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변인 중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등은 1점에서 5점 범위 내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모두 3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 우울은 평균 3.01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개인적 변인 중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가족적 변인 중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 학교사회적 변인으로는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에는 개인적 변인 중 부부재 기간, 자존감, 정서적 대처가, 가족적 변인 중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 학교사회적 변인 중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에 도구적 지지,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친구관계만족도, 자존감, 학교성적,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는 가족스트레스, 모자녀 갈등관계, 가족자원, 정서적 대처,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자존감, 정서적 지지, 부부재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모자가족 청소년자녀, 심리적 안녕, 개인적 변인, 가족적 변인, 학교사회적 변인

1) 교신저자 : 김오남,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E-mail : onk@mail.daebul.ac.kr

I. 서론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 중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1990년 사이 이혼가구수가 3만 5천에서 17만 천으로 5배정도 증가하였고, 사별가구수는 45만 5천에서 119만 6천으로 2.6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의 17.3%와 기혼남성의 2.9%가 사별가구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6). 또한 1991년 11.8%이던 이혼율이 불과 십여년 만인 2002년에는 47.4%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02).

모자가족의 자녀들은 부부재(父不在)이후에 오는 우울, 외로움, 분노,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서적 문제와 부모의 상실로 인한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전학과 같은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는 역할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교생활에의 적응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Amato & Keith, 1991; Emery, 1998; Hetherington & Anderson, 1989). 이와 같은 현상은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녀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모자가족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적응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발달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지며 결혼의 질보다는 결혼의 안정성이 더 중요시되고, 이혼과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비자발적으로 포함되는 자녀들이 받게 될 사회적 영향과 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관련변인의 파악은 이론적 차원 뿐만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자가족 자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빈곤,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대처, 적응 등을 주로 다루었나 편모가

족개입모델(박영희, 1999),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박영희 · 신혜섭, 2001),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정수경, 2001),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이삼연, 2002), 심리 행동문제(주소희, 2003)도 등장하여 이들을 위한 실천과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의 경우 사춘기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서적 ·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자제능력, 자립적인 생활, 학교수업과 같은 발달과업과 함께 모자가족의 경험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일반가족 사춘기 청소년들에 비해 모자가족 사춘기 청소년들이 행동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mato, 1999; 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9).

한편 가족원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그 연구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심리적 안녕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 방법이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입장으로, 복지의 중요 예견변인으로서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생활만족도를 강조한 경우이다(이희정 · 이숙현, 1995; Kopp & Ruzicka, 1993).

두번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는 입장으로, 정서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다(장재정, 1987; Andrew & Withey, 1976; Greene & Feld, 1989).

따라서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

도가 일관성있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최근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의 긍정적 측면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심리적 안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과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는데 체계론적 관점에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수준, 가족적 수준, 학교사회적 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개인적 수준의 변인에서 부부재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적절한 성역할모델의 상실로 일반가족 여아보다 모자가족 여아는 여성적이고 복종적이며 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Hetherington, Cox & Cox, 1975). 특히 이혼가족 청소년자녀에게 행동문제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Hetherington, 1993),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McLanhan & Sandefur, 1994). 부부재 원인에서는 이혼가족 자녀는 부사망가족에 비해 공격적, 일탈적 과잉행동이 많은 반면 부사망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Kiston & Morgan, 1990). 모자가족이 된지 4.5년이 지나면 부모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자녀들도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나 외로움 등의 정서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으며, 6-7년이 지나면 한부모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안정되었다(이삼연, 2002; Hetherington, 1992). 또한 자존감 형성에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가 특히 중요한 요소인데 모자가족 자녀의 경우 자존감이 일반적으로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Amato & Keith, 1991). 대처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제해결방식 중 모자가족 자녀는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특히 이혼한 여성 자녀의 경우 자율적 해결방식,

친척, 가족의 도움, 종교, 친구의 도움 순으로 대처행동이 나타났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경우 우울이 낮았다(정현숙, 1993). Amato(1993)는 자녀적응을 문제와 대처차원의 개념으로 규정짓고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한경혜(1993)도 대처전략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성별, 부부재원인과 기간, 자존감, 대처행동 등에 따라 심리적 안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적 변인에서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즉 생활만족도와 우울(Burden, 1986) 등에 영향을 미쳤다. 백양희와 최외선(1996)은 모자가족 자녀의 경우에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자녀에게는 하나의 사건으로 성장, 성숙을 지연시키고 애정결핍과 대화단절을 초래하여 적응능력의 저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이혼가족 자녀의 경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과 깊은 관련성을 보였으며(Amato, 1993; Barber, 1994), 자녀가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안녕이 낮게 나타나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자녀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김영희, 1995; Pett Vaughan-Cole & Wampold, 1994). 또한 모자녀관계의 경우 가족응통성과 가족유대가 좋을수록, 부모지지가 적절하고 모의 처벌이 적을수록, 자녀의 생활만족은 높게 나타났다(Henry, 1994; Kline, Johnson & Tschann, 1991). 모의 양육 기술, 적응상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정현숙, 1993; Booth & Amato, 1991; Machida & Holloway, 1991)임을 알 수 있다.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아버지와 자주 접촉한 경우 자녀는 이혼 후 잘 적응하며 문제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적다고 보고하였다(정

현숙, 1993; Depner & Bary, 1993). 모자가족이 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간접경로를 거치기도 하여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김영희, 1995; Schmidt-Denter & Beelmann, 1995). 가족안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자원, 모자녀관계, 부와의 관계, 소득 등 다양한 현상들도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사회적 요인에서는 일반가족에 비해 모자가족 청소년기 자녀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Amato & Keith, 1991), 특히 이혼에 강한 인상이 남아있는 자녀들은 학업상의 문제를 더 보였다 (Kelly, 1988). 또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문제가 적을수록 자녀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정현숙·서동인, 1996; Bronstein, Clauson, Stoll & Abrams, 1994). 또한 모자가족 자녀의 지지적이고 예측가능하여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학교,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등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되며 이 자원은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 친구나 교사의 지지(김영희, 1995; 정현숙, 1993), 부모의 지지(정현숙, 1993), 조부의 지지(Hetherington & Anderson, 1989), 친족지지 (Talyor & Roberts, 1995) 등이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나 그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켰다(Erickson, 1989).

이와 같이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자가족 자녀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왔으며 사실, 지금까지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

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차원에서 심리적 안녕과 그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지지와 제도적 지원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가족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자녀의 개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변인들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개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차원의 관련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은 개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차원의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모자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의 자녀 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3개군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모자가족의 자녀를 선별하여 자녀에게 설문지를 각각 배부하여 가정에서 기입한 후 다음날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모자가족의 자녀를 접촉하는데 부득이 학교라는 장소를 선택하여 자료수집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2003년 6월 2일에서 1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003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320부를 배부하여 295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28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이 조사되어 남학생이 46.4%, 여학생이 53.6%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은 12-14세가 54.3%, 15-17세는 45.7%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35.6%, 3명 32.0%, 4명 이상 26.4%, 1명이 6.0%로 나타났다. 자녀종교는 기독교 42.6%, 불교 14.4%, 천주교 12.0%, 종교없음이 29.6%며 나머지는 기타종교로 나타났다. 가정 월평균 소득은 80만원이하가 34.0%, 81-120만원이 43.8%로 저소득층이 분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부재 기간은 2-5년이 49.3%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5.2%, 10-14년은 25.5%를 각각 나타내었다. 부부재 원인은 부의 사별이 69.0%, 부모이혼이 31.0%로 나타났다.

조사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관련 전공 교수 2인과 청소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개인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부부재 원인과 기간, 자존감, 대처행동 등을 개인적 변인으로 조사하였다. 부부재 원인은 사별과 이혼으로 국한하였으며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내용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등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총 10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대처행동의 척도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와 Gruen(1986), Billing와 Moos(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크게 두 영역인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로 나누었다. 정서적 대처행동에는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지적 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방어, 회화, 우유부단, 지연, 위축, 신앙 등 12문항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회,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 등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 범위는 각각 12-60점, 11점-55점이다.

가족적 변인

가족적 변인으로서는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관계, 부와의 관계, 가정 월평균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스트레스의 도구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과 Barnett & Baruch(1985)의 연구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모자가족이 된 이후 경험한 사건에 따른 긴장이나 부담정도를 스트레스인자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각각 27문항이며 가족관계(6문항), 재정적 문제(5문항), 학교-가정갈등(6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 등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27문항 점수범위는 27-135점이다.

가족자원척도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재정적 복지(6문항), 가족의 건강도 I (Family Strength I: 자존감과 의사소통-6문항), 가족의 건강도 II(Family Strength II: 숙달감과 성취-7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총 19문항 점수범위는 30-150점이다. 모자녀관계는 Barber(1994)의 부모자녀간 갈등척도(Parent-Children Conflict Scale)를 사용하는데 자녀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옷입는 방식,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 현재 자녀가 어울리고 있는 동성친구, 자녀의 귀가시간, 집안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충돌, 자녀의 성욕구나 성행동, 자녀의 술·담배 등의 허용여부, 자녀의 돈쓰는 방식, 자녀의 학교생활 등의 모자녀 갈등과 자녀가 가족과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 내용 등에 관한 갈등정도를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다. 부와의 관계는 과거에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갈등적이었다(1점)에서 매우 우호적이었다(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학교사회적 변인

학교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5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11문항 점수범위는 11-55점이다. 학교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등을 물어보았으며, 친구관계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 척도

심리적 안녕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생활만족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만족, 어머니와의 대화만족, 나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만족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2점-60점이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가시게 느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귀찮게 느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우울한 기분, 공부에 몰두가 안됨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범위는 14점-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s α 를 산출하였는데 자존감은 .912, 정서적 대처는 .823, 문제해결적 대처는 .845, 가족스트레스는 .877, 가족자원은 .852, 모자녀갈등 .894, 생활만족도는 .889, 우울은 .920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개인적 변인 중 성별은 평균 .54, 부부재 원인에서는 이혼을 1로 보았을 때 .31로 나타났으며 부부재 기간은 평균 7.52년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등은 1점에서 5점범위 내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대처는 문제해결적 대처 행동보다는 낮은 점수인 2.90을 나타내었다. 가족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스트레스, 모자녀 갈등관계나 긍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자원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두 3점을 앞섰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이 높지 않게 나타나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문제의 소지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117만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학교사회

표 1.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인	M(SD)
개인적 변인	성별(1=여)	.54(.12)
	부부재 원인(1=이혼)	.31(.42)
	부부재 기간	7.52(6.81)
	자존감	3.14(.56)
	문제해결적 대처	3.09(.46)
	정서적 대처	2.90(.51)
가족적 변인	가족스트레스	2.55(.55)
	가족자원	2.94(.50)
	모자녀 갈등관계	2.49(.64)
	전배우자와의 관계	2.95(.67)
	가정 월평균소득	117.00(56.80)
학교사회적 변인	도구적 지지	3.50(.68)
	정서적 지지	2.50(.74)
	학교성적	2.12(.54)
	친구관계만족도	3.34(2.14)
심리적 안녕	생활만족도	3.18(.62)
	우울	3.01(.76)

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자가족 자녀들이 청소년시기이고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서적 지지에 대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성적은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권을 의미하는데 상위권과 하위권의 중간보다 약간 낮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34로 보통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적응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에 있어 청소년자녀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평균 3.01으로 중간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대처,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2>, <표 3>, <표 4> 하단에 제시하였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성별, 부부재원인, 기간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존감이 높은 집단,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부부재 기간, 자존감, 정서적 대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성별, 부부재 원인, 문제해결적 대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 자존감이 높은 집단,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우울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 중 자존감과 대처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대처행동 중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정서적 대처에 따라 우울이 차이를 보였으며 대처의 유형은 다르나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이삼연, 2002)에서도 한부모가족이 된지 7년이상 된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로 볼 때,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가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부부재 이전 아버지와 관계를 제외한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즉 가족스트레스가 낮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표 2.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변 인		심리적 안녕	N(%)	생활만족도			우 울		
				M	F(t)	D	M	F(t)	D
성별	남학생		130(46.4)	36.05			43.60		
	여학생		154(53.6)	35.88	.04		42.37	.87	
부부재 원인	사별		196(69.0)	38.59			41.93		
	이혼		87(31.0)	37.18	2.12		43.03	.63	
부부재 기간	2-3년 이하		94(33.3)	38.36			43.42		A
	4-5년		45(16.0)	38.05	.09		42.66	2.81*	A
	6-9년		71(25.2)	38.10			41.12		B
	10년 이상		72(25.5)	37.27			39.58		B
자존감 ^a	낮은 집단		41(14.4)	28.90		C	46.37		A
	중간 집단		202(71.2)	36.77	46.02***	B	43.05	17.34***	B
	높은 집단		41(14.4)	43.20		A	37.40		C
문제해결적 대처 ^a	낮은 집단		65(28.9)	34.31		B	45.60		
	중간 집단		162(57.0)	36.62	7.99**	B	44.16	.58	
	높은 집단		57(20.1)	39.21		A	43.77		
정서적 대처 ^a	낮은 집단		39(13.7)	33.26			44.81		A
	중간 집단		192(67.6)	34.64	4.30		41.64	15.52***	B
	높은 집단		53(18.7)	35.81			37.26		C

* p<.05 ** p<.01 *** p<.001

(a: 낮은 집단<M-SD, M-SD≤중간집단≤M+SD, 높은 집단>M+SD)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인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학교성적이 상위권인 집단,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도구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지

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학교성적이 중위권이상인 집단, 친구관계에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은 사회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교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시급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기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친구관계

〈표 3〉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변 인		심리적 안녕	N(%)	생활만족도			우 율		
				M	F	D	M	F	D
a	가족스트레스	낮은 집단	89(31.3)	39.96		A	36.32		B
		중간 집단	128(45.1)	37.73	6.50**	B	37.41	7.13**	B
		높은 집단	67(23.6)	36.15		B	40.65		A
a	가족자원	낮은 집단	47(16.5)	31.00		C	46.51		A
		중간 집단	185(65.2)	35.65	33.31***	B	43.30	10.56***	A
		높은 집단	52(18.3)	41.52		A	37.96		B
a	모자녀 갈등관계	낮은 집단	57(20.1)	41.73		A	38.30		B
		중간 집단	187(65.8)	35.73	22.93***	B	43.29	5.18**	A
		높은 집단	40(14.1)	31.20		C	45.00		A
부부재 이전 아버지와의 관계	갈등적임 중간임 우호적임	갈등적임	85(29.9)	36.33			40.33		
		중간임	175(61.6)	37.89	.55		38.03	1.97	
		우호적임	24(8.5)	37.60			37.57		
가정 월평균소득	80만 이하 81-120만원 121만이상	80만 이하	96(34.0)	35.65		B	38.98		A
		81-120만원	124(43.8)	34.63	4.79**	B	38.09	2.93*	A
		121만이상	64(22.2)	38.98		A	35.71		B

*p<.05 ** p<.01 *** p<.001

(a: 낮은 집단<M-SD, M-SD≤중간집단≤M+SD, 높은 집단>M+SD)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학교세팅에서의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우선적되어야 하겠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가족적, 학교 사회적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51 < r < .452$ 의 범위로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변인으로서는 부부재 기간, 자존감, 대처가 가족적 변인으로서는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이, 학교사회적 변인으로서는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st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98-2.012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선성검증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위험

표 4.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변 인		심리적 안녕	N(%)	생활만족도			우 울		
				M	F(t)	D	M	F(t)	D
a 도구적 지지	낮은 집단	35(12.3)		34.33		B	46.60		
	중간 집단	212(74.6)		35.65	5.83**	B	43.16	.58	
	높은 집단	37(13.1)		39.20		A	43.23		
a 정서적 지지	낮은 집단	39(13.7)		32.26		C	39.81		A
	중간 집단	192(67.6)		35.64	12.37***	B	35.64	14.30***	B
	높은 집단	53(18.7)		39.81		A	32.26		C
학교성적	상위권	100(35.2)		38.38		A	39.69		B
	중위권	69(24.3)		35.25	8.34**	B	41.38	7.02***	B
	하위권	115(40.5)		31.46		B	44.97		A
친구관계 만족도	만 족	181(63.7)		39.51		A	34.12		B
	보 통	82(28.9)		37.36	7.66**	B	34.92	19.22***	B
	불만족	21(7.4)		34.32		B	40.12		A

p<.01 *p<.001

(a: 낮은 집단<M-SD, M-SD≤중간집단≤M+SD, 높은 집단>M+SD)

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가족적, 학교 사회적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에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의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8.47로 전체 생활만족도 변량의 5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청소년자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 중 우울에 부부재 기간, 자존감, 정서적 대처,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 갈등관계, 정서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 등의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5.95로 전체 우울변량의 54%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부재 기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자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모자녀갈등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표 5.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 속 독 립	변 인	생활만족도		우 울	
		B	β	B	β
개인적 변인	부부재 기간	.89	.09	-2.38	-.10*
	자존감	3.89	.19**	-2.79	-.14*
	문제해결적 대처	3.29	.17**	.95	.06
	정서적 대처	-1.89	-.10	-3.51	-.18**
가족적 변인	가족스트레스	-5.37	-.27***	8.79	.45***
	가족자원	5.44	.26***	-4.45	-.27***
	모자녀 갈등관계	- .72	-.04	4.93	.23***
	가정 월평균소득	1.32	.09	-3.38	-.04
학교사회적 변인	도구적 지지	5.96	.28***	.07	-.02
	정서적 지지	2.89	.16**	-2.13	-.12*
	학교성적	3.12	.18**	-3.66	-.16***
	친구관계만족도	3.77	.22***	-3.56	-.16***
F		38.47***		35.95***	
R ²		.56		.54	

* p<.05 ** p<.01 *** p<.001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개인적 변인, 가족적 변인, 학교사회적 변인 모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지와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들의 심리적 안녕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가족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자녀의 개인적, 가족적, 학교사회적 변인들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

석하여 모자가족 자녀의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자녀로서 284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개인적 변인 중 성별은 평균 .54(여=1), 부부재 원인에서는 .31(이혼=1)로 나타났으며 부부재 기간은 평균 7.52년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문제해결적 대처 등은 1점에서 5점범위 내에서 중간점수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대처는 문제해결적 대처행동보다는 낮은 점수인 2.90을 나타내었다. 가족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스트레스, 모자녀 갈등관계나 긍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자원과 아버지와의 관계

에서 모두 3점을 넘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이 높지 않게 나타난 점이며 반면 이러한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주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117만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학교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권을 의미하는데 상위권과 하위권의 중간인 중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만족도에서는 3.34로 보통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에 있어 청소년자녀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평균 3.01으로 중간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의 경우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3점을 넘어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의 중요자원으로서 취약한 환경 조건하에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따라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는데 자녀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 활용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자녀의 학교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모자가족 청소년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Amato & Keith, 1991; Kelly, 1988)는 결과와 일치되고 있으며 오늘날 학업위주의 풍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둘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 자존감이 높은 집단,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 중 자존감과 대처에 따라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대처행동에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정서적 대처에 따라 우울이 차이를 보였으며 대처의 유형은 다르나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이삼연, 2002)에서도 한부모가족이 된지 6-7년이상 된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로 볼 때 한부모가족이 된 후 청소년자녀가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모자가족으로 인한 영향은 사별보다 이혼여성 자녀 경우 행동문제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Hetherington, 1993)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 부부재 기간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Emery, 1998),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사별전이나 이혼전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가족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에 따라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위해서 가족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이 모

색되어야 하며 사별이든 이혼이든 아버지의 상실로 인해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다면 자녀는 심리적 불안정감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여성들도 어린 자녀들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의 애정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 좀 더 성숙한 자녀가 또래들과 비행을 저지를 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성정현, 2002).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학교세팅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입 등의 학교사회사업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족자원이나 가정 월평균소득 등 현실적인 생활이 필요한 요소들에 따라 불가피하게 심리적 안녕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 후 모자가족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의 공공부조는 미약한 수준의 결과로 본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심리적 안녕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모든 조사대상의 부부재 기간이 2년 이상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별이든 이혼이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안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되리라 본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정서적 문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성격, 성역할 태도, 부부재 원인 등의 다른 변수가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학교성적이 상위권인 집단,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도구적 지지를 제외하고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학교성적이 중위권이상인 집단, 친구관계에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은 사회적 지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김영희, 1995), 보호요인으로서 스트레스상황을 극복하여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매개자로서 활용된다(Compas et al., 1995; Erickson, 1989)라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향상에 사회적 지지의 비중은 크다고 하겠다. 한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성적과 친구관계만족도가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정현숙·서동인, 1996; Bronstein et al., 1994)는 결과들을 볼 때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친구관계향상, 학업성적향상 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8.47로 전체 생활만족도변량의 56%를 설명해 주고 있다.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부부재 기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자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모자녀 갈등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

록,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5.95로 전체 우울변량의 54%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개인적 변인 중 생활만족도에 문제해결적 대처가, 우울에는 정서적 대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할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감정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대처는 우울에 작용되어 결국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 향상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김영희, 1995; Amato, 1993)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며 이들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대처행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존감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은 삶을 영위하는데 본질적이며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므로 청소년자녀의 자존감 증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가족적 변인에서는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이 심리적 안녕에 핵심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족자원이 많은 경우(안명자, 1994; Gerstel, 1989),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경우(Shapiro, 1996)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갈등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어 자녀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자녀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된다. 최해경(1997)도 친밀한 가족관계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교사회적 변인으로서는 정서적 지지와 학교성적, 친구관계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며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수준이 향상되었다(최해경, 1997; Amato, 1993; Talyor & Roberts, 1995). 특히 이혼여성 자녀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Clark & Barber, 1994). 따라서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형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민간단체 등의 서비스와 학교내에서의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주어진다면 심리적 안녕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성과와 친구관계만족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개입이 이루어지고 또한 학업지원, 멘터링(mentoring) 프로그램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방식인 문제해결적 대처는 생활만족도에 정서적 대처는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대처행동이 동시에 행해질 때 심리적 안녕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과 문제해결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를 볼 때 대처행동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정보전달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둘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자녀의 가족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대차

와 모자가족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가족상담과 치료경로를 통해 가족생활 갈등과 문제를 줄임으로써 심리적 안녕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가족복지정책에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우울에 모자녀간 갈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또한 모자가족의 교육이나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자녀성장과, 발달, 배려와 이해 등의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어머니와 자녀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가족관계강화와 문제해결 프로그램, 심리적 안녕 증진 프로그램과 가족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과 한부모가족 모두를 위한 out-reach서비스도 행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또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욕구충족, 자존감향상과 같은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과도기적 발달단계에서 심리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성인들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들로 정서적 후원자와 역할모델이 되어 줄 멘토링(mentoring)서비스(성인과 청소년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1대 1관계)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 다양한 인터넷사이트 개

발과 같은 다양한 국가주도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학업과 친구관계는 발달시기상 중요과업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적과 친구관계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리적 안녕은 학업과 친구관계를 잘 지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자가족 자녀들의 좋은 친구관계를 위해서는 개인적 혹은 집단개입과 지역사회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집단개입은 청소년자녀들이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서로의 경험과 문제들을 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지원과 공부방 지원, 당면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자조집단관계망을 통한 친구들과의 상호지지의 활성화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학교차원에서의 학업증진과 보충학습을 위한 온라인상 학습센터의 정보망 구축 등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는 결과로 볼 때 가족의 유형과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학교부적응, 심리적 소외, 사회적 편견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며 각 기관에서는 자녀의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학교사회적 차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정부 각 소관부처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부분의 척도를 선

행연구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였으나 외국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문화적 타당성의 검증여부가 있어야 하는 점과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서의 모자가족 자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5). 편모가정 내의 자녀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박영희 (1999). 편모가족 개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4호, 53-92.
- 박영희 · 신혜섭 (2001).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 개입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권, 146-177.
- 백양희 · 최외선 (1996). 농촌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1), 33-48.
- 성정현 (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제 9호, 31-53.
- 안명자 (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호, 37-66.
- 장재정 (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정수경 (2001). 모자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권, 288-317.
- 정현숙 (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정현숙 · 서동인 (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33-64.
- 주소희 (2003). 이혼가정자녀의 부모이혼 후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1호, 77-106.
- 최해경 (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권, 377-395.
- 통계청 (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2002).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 이혼편). 통계청.
- 한경혜 (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i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38.
- Amato, P. R. (1999). Children of divorced parent as young adults,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resiliency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ndrew, F. & Withey, S.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75-386.
- Barnett, R. & Baruch, G. 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35-145.
- Billings, A.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Booth, A. & Amato,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onstein, P., Clauson, J., Stoll, M. F., & Abrams, C. (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3), 268-276.
- Burden, D. S. (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1), 37-43.
- Clark, J. & Barber, B. L. (1994). Adolescents in post divorce and always married families: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fathers; inter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608-614.
- Compas, B. E., Hiden, B. R., & Gerhardt, C.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705-715.
- Depner, D. E. & Bary, J. H. (1993). *Nonresidential parenting*. CA: Sage Publishers.
- Emery, R. E. (199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Erickson, C. A (1989). Negative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Satisfaction with support from family vs. friends. *Family Perspective*, 23(2), 85-97.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Gerstel, N. (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09-219.
- Greene, R. W. & Feld, S. (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33-52.
- Henry, C. (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4), 447-455.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 Hetherington, E. M. (1999).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of youth from nondivorced, divorced, and remarried families. In A. Collin(Ed.), *Relationship as developmental contexts: The 29th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etherington, M. & Anderson, E. (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etherington, E., Cox, M., & Cox, R. (1975). Beyond father absence, conceptualization of effects of divorce. In J. H. Stevens, Jr., & M. Mat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ist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 Kelly, J. (198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9-140.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297-309.
- Machida, M. S. & Holloway, D. S.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d mothers perceived control over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ost-divorce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0(3), 272-278.
- McCubbin, H. I. (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 Comeau, J. K. (1987). FIRM: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pp. 145-160). Madison:University of Wisconsin.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D. H. & Barnes, H. L. (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ett, M. A., Vaughan-Cole, B., & Wampold, B. E.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2), 151-158.
- Radloff, L. (1977). The CED-S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ty Press.
- Schmidt-Denter, U. & Beelmann, W. (1995). *Familiare Beziehung nach termin und Scheidung* Univeritat Koln.
- Taylors, R. D. & Roberts, D. (1995). Kinship support and maternal and adolescent well-be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6, 1585-1597.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fluencing Factors of Single 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Kim, Oh Nam

Dep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and the differences of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school-social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mother family. The subjects were the 284 of adolescents living in Kwangju and Chonn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Test, F-test, Pearsons' r, multiple regression by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ores of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individual variables were higher than median, family variables were lower than median, and instrumental support is higher than emotional support.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bout median. 2. Single mother family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lf-respect, problem-solving coping,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monthly income,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grade,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ime after single mother family, self-respect, emotional coping,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monthly income, emotional support, grade,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3. Life satisfaction of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was influenced by self-respect, problem-solving coping,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grade,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Depression of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was influenced by time after single mother family, self-respect, emotional coping,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emotional support, grade, satisfaction of friend relationship. In conclusion, to develop single mother family with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must be used individual, family, school-social environment variables and implications for alternatives to support adolescents from this study were provided.

Keywords : single mother family's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individual, family, school-social environment variables